

이슈페이퍼 2012-02

www.kicce.re.kr

ISSUE

P A P E R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차례

1. 서론	1
2. 부모의 자녀 양육	1
가. 자녀 발달에 대한 인식	1
나. 역할 수행	2
3. 기관의 지원과 대응	4
가.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4
나. 초등학교	5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과 욕구	8
가. 부모 대상 프로그램	8
나. 자녀 대상 프로그램	13
5. 정책제언	18
가. 자녀발달지원 사업 강화	18
나. 부모 역량 강화	19
다. 자녀발달 정보 제공	20
라. 다문화지원센터 방문서비스 강화 방안	21
참고문헌	22

1. 서론

-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녀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증가가 예상되므로 영유아는 물론, 아직은 규모가 많지 않은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령기 아동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행전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10만여명이 넘고 이들 중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64.5%를 차지함.
- 또한 결혼이민자 자녀 중에는 이전 결혼에서 출산하여 입양 형식으로 입국한 중도입국자녀가 약 4,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 본 글은 육아정책연구소가 1,826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실태 조사 결과의 일부로, 결혼이민자의 부모역할 수행 실태, 기관적응, 다문화지원센터 관련 사업 경험과 요구 등을 알아보고 정책제언을 도출하였음.¹⁾

2. 부모의 자녀 양육

가. 자녀 발달에 대한 인식

- 영유아 자녀의 발달상태에 대한 부모 인식은 교사의 인식과 차이를 보임.
- 자녀의 발달 상태를 점수화하여 산출한 결과 5점 평균에서 3.33점으로 대부분 또래와 비슷하다고 평가하였음. 발달영역 중 사회성 발달과 인지 발달이 평균 3.48점, 3.42점으로 높고, 언어발달이 3.27점이며 신체발달은 3.1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한편 영유아 기관 교사들의 아동발달에 대한 의견은 신체 발달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모 평가보다 부정적임.

1) 본고는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의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욕구』 연구보고서 일부를 요약한 것임.

〈표 1〉 어머니의 자녀 발달상태 인식 개요: 또래와 비교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5점 평균
	많이 늦음	늦음	비슷	빠름	많이 빠름	모름/무응답		
신체발달	2.5	16.4	57.7	17.3	4.7	1.6	100.0(1,826)	3.15
언어발달	2.0	18.7	54.5	15.7	5.1	3.9	100.0(1,826)	3.27
인지발달	2.2	11.9	60.5	15.6	4.0	5.9	100.0(1,826)	3.42
사회성발달	1.6	9.5	63.0	14.4	5.4	6.0	100.0(1,826)	3.48
계								3.33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표 2〉 영유아 기관 교사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발달 인식: 또래와 비교

구분	단위: %(명)						계(수)	5점 평균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빠름	매우 빠름	모름		
신체 발달	0.8	8.6	63.7	19.1	7.8		100.0(1,200)	3.24
정서 발달	2.4	24.4	56.9	13.0	3.3		100.0(1,200)	2.90
언어 발달	10.0	41.5	33.3	11.7	3.6		100.0(1,200)	2.57
인지 발달	4.0	27.4	50.8	13.9	4.0		100.0(1,200)	2.86
사회성 발달	3.4	24.0	54.8	14.0	3.8		100.0(1,200)	2.91

자료: 장명립·장혜진·권미경·이세원·한영숙(2011).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나. 역할 수행

- 결혼 이민자 여성의 부모 역할 중 문화공간 가기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5점 평균으로도 맛있는 음식 해 주기가 3.93점이고, 자주 놀아 주기와 이야기를 많이 해 주기는 3.85점, 3.86점, 책을 읽어주거나 공부를 봐주는 것은 3.49점이고 도서관, 서점, 공연 등 문화 공간 가기는 2.70점임.

〈표 3〉 평소 부모역할 개요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놀이하기	0.8	5.0	31.3	33.1	29.2	0.6	100.0(1,826)	3.85	
음식 해 주기	1.6	3.4	26.6	35.8	31.6	1.0	100.0(1,826)	3.93	
문화공간 가기	16.9	26.2	30.8	15.7	7.4	3.0	100.0(1,826)	2.70	
이야기하기	1.2	5.0	29.2	33.6	29.2	1.8	100.0(1,826)	3.86	
책읽기/공부봐주기	5.2	11.3	31.9	29.5	20.4	1.7	100.0(1,826)	3.49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점, 놀이공원, 연극 영화, 체험행사 등 자녀와의 여가·문화생활은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6개월 동안 자녀와 함께 서점은 가지 않았다는 응답이 33.6%, 놀이공원 22.9%, 영화, 연극 등 공연에는 가지 않은 경우가 46.2%로 절반 가까이 되었으며, 캠프나 현장학습과 같은 체험행사는 가지 않은 비율이 38.0%임.

〈표 4〉 자녀와의 여가·문화생활 방문횟수 개요: 지난 6개월

단위: %(명)

구분	없음	1회	2회~5회 미만	5회~12회 미만	12회 이상	다수	모름	계(수)
서점 등	33.6	13.1	15.0	7.3	4.5	0.4	26.0	100.0(1,826)
놀이공원	22.9	21.8	20.3	6.8	1.9	0.3	26.0	100.0(1,826)
연극 등	46.2	13.9	11.2	2.2	0.5	0.1	26.0	100.0(1,826)
체험행사	38.0	16.2	16.3	3.0	0.4	0.1	26.0	100.0(1,826)
기타	66.4	3.3	2.5	1.2	0.4	0.2	26.0	100.0(1,826)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 결혼이민자 여성은 자신의 자녀 양육 역량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 자녀 공부 도와주기, 자녀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와 건강하게 기르기, 아플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 올바르게 상주기 모두 4점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강함.

〈표 5〉 자녀양육 역량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계(수)	5점 평균
안전한 보호	0.4	1.2	13.6	39.4	45.1	0.3	100.0(1,826)	4.28
건강하게 양육	0.2	0.7	13.5	40.2	45.0	0.4	100.0(1,826)	4.30
아플 때 대처	0.2	2.1	18.0	39.3	39.5	0.9	100.0(1,826)	4.17
공부 도움	2.7	11.8	33.2	30.2	20.9	1.2	100.0(1,826)	3.55
올바른 성장	0.1	2.5	18.9	40.2	37.5	0.8	100.0(1,826)	4.13
적응애로 도움	0.7	4.7	23.7	37.8	31.9	1.2	100.0(1,826)	3.97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3. 기관의 지원과 대응

가.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 영유아 자녀의 기관 이용 시 상당수의 어머니는 알림장 해독, 가정통신문 해독, 준비물 준비, 원장이나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기관 이용시 어머니가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교사나 원장과 의사소통이 58.8%로, 4점 척도로는 평균 2.82점임. 그 밖에는 알림장 해독은 어렵다가 37.3%, 가정통신문 이해는 39.1%로 20%, 기관 준비물 준비 26.2점임.

〈표 6〉 기관 이용 시 어머니의 어려움 개요

단위: %(명)

구분	많이 어려움	조금 어려움	별로 안 어려움	전혀 안 어려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점
알림장 해독	7.8	29.5	35.6	25.7	1.4	100.0(1,248)	2.20
가정통신문 해독	8.7	30.4	35.0	24.1	1.8	100.0(1,248)	2.24
준비물 준비	4.6	21.6	39.2	32.5	2.1	100.0(1,248)	1.98
의사소통어려움	28.8	30.0	33.6	6.3	1.4	100.0(1,248)	2.82

주: 점수가 높을수록 애로가 많음을 의미함.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 알림장 및 가정통신문을 해독하거나 준비물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남편이 75.8%로 가장 많았음. 시댁식구와 다문화 관련 기관이 10% 정도이고, 결혼이민자 이웃이나 한국인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은 10% 미만임.

〈표 7〉 알림장 해독 등 애로가 있을 경우 도움을 받는 사람(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남편	시댁 식구	결혼이민자 이웃	한국인 이웃	다문화 관련 기관	친정 친구	기타	없음	(수)
전체	75.8	11.1	6.9	4.7	10.7	1.6	1.6	2.9	(550)
지역									
대도시	80.1	10.6	4.3	5.0	7.1	1.4	0.7	2.8	(141)
중소도시	72.7	9.4	10.8	5.8	12.2	1.4	2.9	6.5	(139)
읍·면지역	75.2	12.2	6.3	4.1	11.9	1.9	1.5	1.1	(270)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 부모 조사에서도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특별히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글교육이 19.6%로 가장 많았으며, 방과 후 특별지도나 이중 언어교육은 5% 정도임. 없다는 비율도 65.5%를 차지함.

〈표 8〉 기관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특별프로그램 실시율: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한글교육	이중언어교육	멘토	방과 후 특별지도	기타	(수)
전체	19.6	4.8	2.6	5.0	3.5	(1,248)
지역						
대도시	13.2	2.3	2.6	4.3	3.0	(302)
중소도시	18.2	7.3	3.3	4.6	3.0	(329)
읍·면지역	23.5	4.7	2.3	5.5	4.1	(617)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가 특별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74.2%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임. 한글교육은 읍·면지역, 이중 언어는 중소도시가 많았음. 멘토, 방과후 특별지도 등은 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나. 초등학교

- 현재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방과 후 특별지도가 4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 15.9%, 독서지도 14.0% 순이었고, 멘토프로그램, 이중 언어교육, 기타는 10% 미만이었음. 반면 없다는 비율도 24.5%를 차지함.

〈표 9〉 초등학교 다문화가족 특별 프로그램: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한국어 교육	이중 언어 교육	독서 지도	방과 후 특별지도	멘토	기타	(수)
전체	15.9	6.2	14.0	41.7	9.3	6.1	(593)
지역							
대도시	17.4	6.6	13.2	48.8	17.4	9.1	(121)
중소도시	10.3	6.1	7.3	35.2	6.7	6.1	(165)
읍·면지역	18.2	6.2	17.9	42.3	7.5	4.9	(307)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 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이 모든 초등학교에서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운영되어도 주로 숙제지도나 언어발달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별로 보면, 방과 후 특별지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에 비해 많았음. 한국어 교육과 독서지도는 중소도시보다 읍·면지역이 더 많았음. 특별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은 중소도시가 읍·면지역이나 대도시보다 10% 정도 더 많았음.
-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37.0%임.
-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거주기간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임.

〈표 10〉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해독 애로

단위: %(명)

구분	많이 어려움	조금 어려움	별로 안 어려움	전혀 안 어려움	모름/무응답	계(수)	4점 평균
전체	7.3	29.7	32.4	21.6	9.1	100.0(593)	2.25
지역							
대도시	6.6	33.9	32.2	17.4	9.9	100.0(121)	2.33
중소도시	9.1	27.3	30.9	23.6	9.1	100.0(165)	2.24
읍·면지역	6.5	29.3	33.2	22.1	8.8	100.0(307)	2.22
X ² (df)/F			na				0.6
거주기간							
4년 미만	14.5	36.2	15.9	5.8	27.5	100.0(69)	2.82
4년~ 8년 미만	8.4	29.0	32.8	9.2	20.6	100.0(131)	2.46
8년 이상	5.7	28.8	35.6	28.3	1.6	100.0(385)	2.12
X ² (df)/F			110.6(8)**				17.6***

주: 점수가 높을수록 애로가 많음을 나타냄.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 $p < .01$, *** $p < .001$, na는 X² 검정 부적절함을 의미함.

- 자녀의 학교 준비물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25.0%가 애로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4점 척도에서 전체 평균이 2.05점이었음. 학교 준비물 준비는 통신문 해독보다는 어려움 정도가 약간 낮았음.
- 모의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 조선족이 1.69점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2.56점, 2.39점 순으로 높아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음. 어렵다는 응답 비율은 태국과 베트남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음.

-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거주기간은 길어지면서 어머니의 학교 준비물 준비가 수월해지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

〈표 11〉 초등학교의 준비물 준비 애로

구분	단위: %(명)						4점 평균
	많이 어려움	조금 어려움	별로 안 어려움	전혀 안 어려움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4.6	20.4	37.6	24.8	12.6	100.0(593)	2.05
지역							
대도시	5.0	28.1	31.4	22.3	13.2	100.0(121)	2.18
중소도시	4.2	20.0	34.5	27.9	13.3	100.0(165)	2.01
읍·면지역	4.6	17.6	41.7	24.1	12.1	100.0(307)	2.03
X ² (df)/F			na				1.5
거주기간							
4년 미만	4.3	23.2	29.0	4.3	39.1	100.0(69)	2.45
4년~ 8년 미만	6.1	24.4	33.6	13.0	22.9	100.0(131)	2.31
8년 이상	3.9	19.0	41.3	31.9	3.9	100.0(385)	1.95
X ² (df)/F			107.7(8) ^{***}				12.8 ^{***}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 정책연구소

*** $p < .001$,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한편, 대부분인 75%의 어머니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교 입학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음.
- 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프로그램을 주관한 기관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56.6%로 가장 많았음.

〈표 12〉 초등학교 입학 준비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주관 기관(복수응답)

구분	참여 경험 비율	주관 기관					기타	모름/ 무응답	(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회 복지관	종교 기관	행정 기관				
전체	24.5	56.6	5.5	9.7	6.9	20.0	9.7	(157)	
대도시	19.8	50.0	8.3	8.3	8.3	12.5	16.7	(25)	
중소도시	18.2	53.3	6.7	6.7	6.7	23.3	10.0	(32)	
읍·면지역	29.6	59.3	4.4	11.0	6.6	20.9	7.7	(100)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 정책연구소.

-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은 66.3%가 한국어 또는 한글교육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기초 교과목 지도 31.5%, 기본생활습관 형성 27.5%, 컴퓨터 교육 10.1%, 예체능 교육 8.8% 순임.
- 한국어 및 한글 교육은 읍·면지역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많았고, 기초 교과목과 예체능, 컴퓨터 교육은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많았음. 기본생활습관 형성은 중소도시가 많았음.

〈표 13〉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한국어 한글 교육	기초 교과 지도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예체 능 교육	컴퓨터 교육	기타	없음	모름 무응답	(수)
전체	66.3	31.4	27.5	8.8	10.1	0.5	2.4	3.9	(593)
대도시	67.8	33.9	19.8	12.4	11.6	-	3.3	1.2	(121)
중소도시	67.9	30.9	31.5	10.3	9.1	1.2	1.2	1.0	(165)
읍·면지역	64.8	30.6	28.3	6.5	10.1	0.3	2.6	1.7	(307)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 정책연구소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과 욕구

가. 부모 대상 프로그램

1) 서비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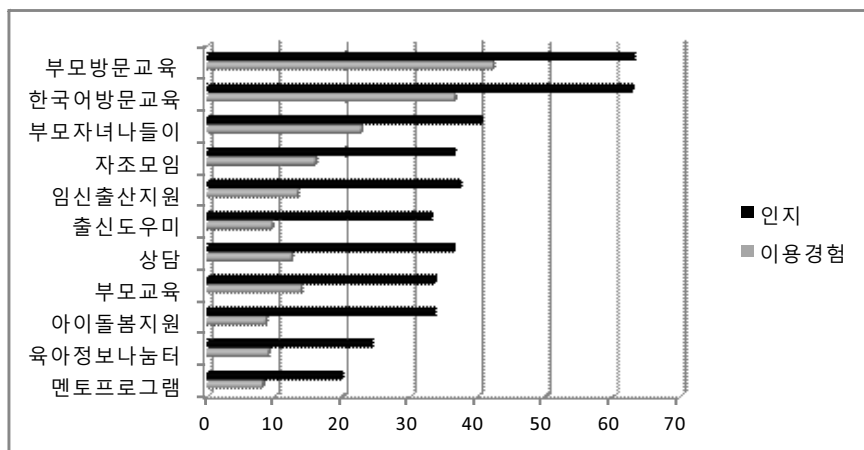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부모지원 서비스 중 이용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가 부모 방문교육으로 42.3%이며, 다음이 한국어 방문교육 36.6%, 부모-자녀 나들이 등 참여활동이 22.8%이고 그 밖에는 8~9% 수준임.

〈표 14〉 부모지원사업 이용 경험률

단위: %(명)

구분	아이 돌봄 지원	육아 정보 나눔터	상담	부모교육	가족 자조 모임	멘토 프로그램	부모 자녀 나들이	부모 방문 교육	한국어 방문 교육	기타 (수)
전체	8.7	9.1	12.5	13.9	16.0	8.2	22.8	42.3	36.6	2.8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8.4	5.4	9.9	10.4	12.9	8.9	25.7	29.7	17.8	2.5 (202)
중국(한족 등)	8.0	11.6	15.2	13.4	16.5	7.6	20.5	44.6	33.9	2.2 (224)
베트남	7.2	8.2	12.1	13.5	14.1	5.8	18.1	43.9	41.4	3.4 (497)
필리핀	12.2	14.3	15.1	16.5	19.0	11.8	25.4	41.9	39.4	1.8 (279)
일본	10.0	7.2	10.0	15.0	15.6	10.6	37.2	40.0	26.7	3.9 (180)
몽골	10.0	10.0	16.7	16.7	11.1	8.9	14.4	44.4	42.2	2.2 (90)
태국	5.2	5.2	9.3	12.4	15.5	8.2	22.7	41.2	33.0	1.0 (97)
캄보디아	9.6	10.8	13.3	13.3	24.1	4.2	18.7	47.6	51.8	3.0 (166)
우즈베키스탄	4.9	2.4	12.2	14.6	17.1	12.2	24.4	61.0	36.6	9.8 (41)
기타	6.0	6.0	6.0	14.0	14.0	10.0	30.0	42.0	44.0	- (50)
지역										
대도시	6.1	8.1	12.4	13.5	14.4	9.9	22.5	47.4	38.9	2.2 (445)
중소도시	7.1	9.9	10.9	12.6	14.9	8.6	21.8	42.2	33.8	4.4 (476)
읍·면지역	10.7	9.3	13.4	14.7	17.5	7.1	23.5	39.8	37.0	2.2 (905)
거주기간										
4년 미만	9.6	11.3	13.1	12.2	14.9	4.8	15.8	46.1	47.7	1.2 (564)
4년~ 8년 미만	8.3	9.7	12.7	15.3	16.9	8.0	23.5	43.2	37.8	3.3 (733)
8년 이상	8.4	6.0	11.7	13.8	16.2	12.1	30.0	37.4	23.2	3.9 (513)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 정책연구소



[그림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지원사업 인지율과 이용 경험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알고 있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유는 잘 몰라서가 54.5%이고, 28.2%는 시간이 없어서, 10.0%는 너무 멀어서, 7.2%는 교통편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음. 일부가 남편, 시부모 등 가족의 반대와 프로그램 수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음.
-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고, 시간적 여유와 접근성의 부족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음.

〈표 15〉 부모지원사업 인지자 중 서비스 미이용 사유(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잘 몰라서	도움이 안됨	시간 없음	프로그램	교통 불편	가족 반대	멀어서	기타	(수)
전체	54.5	1.7	28.2	1.3	7.0	2.1	10.0	10.4	(747)
지역									
대도시	68.2	1.1	29.6	0.6	3.9	1.7	5.6	6.1	(179)
중소도시	55.1	2.7	25.9	1.1	4.3	3.2	6.5	13.0	(185)
읍·면지역	47.8	1.6	28.7	1.8	9.7	1.8	13.8	11.2	(383)
거주기간									
4년 미만	61.3	0.9	17.4	1.3	7.0	0.4	13.0	10.4	(230)
4년~8년 미만	54.0	1.3	29.9	1.3	7.7	3.4	9.4	9.7	(298)
8년 이상	46.7	3.3	38.2	1.4	6.1	1.9	8.0	11.8	(212)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2) 도움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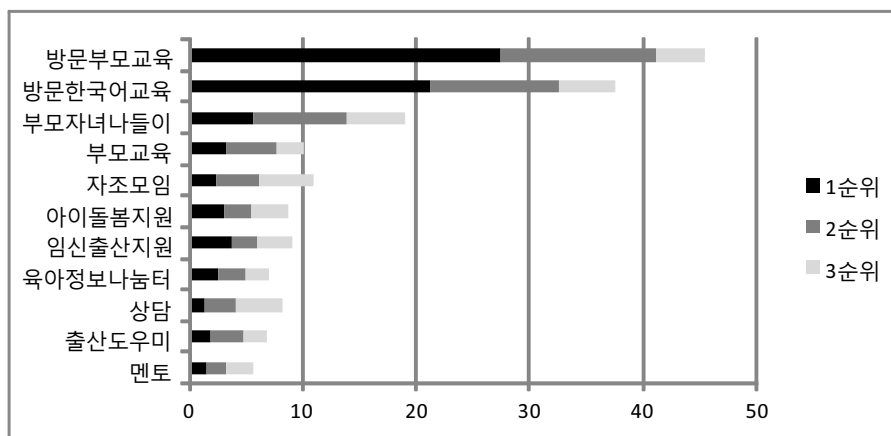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지원사업 이용자의 이용 시 도움된다는 비율이 최소 75%에서 최대 90%에 달함.
- 최저는 아이 돌봄 지원이고, 최고는 한국어 방문교육으로 각각 매우 도움된다는 비율이 50.3%, 71.4%이며, 5점 척도로 각각 4.12점, 4.59점임. 한국어 방문교육 이외에 부모방문교육 만족도는 4.53점이고 매우 도움된다는 비율이 68.1%로 높게 나타남. 부모-자녀 나들이 만족도도 매우 만족이 59.4%이고 5점 척도로는 4.43점임.

〈표 16〉 부모지원 사업이 자녀양육에 도움 되는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5점 평균
임신·출산지원	0.4	2.7	20.4	22.1	54.4	100.0(226)	4.27
출산 도우미	1.9	3.1	17.9	20.4	56.8	100.0(162)	4.27
아이 돌봄 지원	4.8	2.0	19.7	23.1	50.3	100.0(147)	4.12
육아정보 나눔터	1.4	3.4	17.1	28.1	50.0	100.0(146)	4.22
상담	1.0	1.4	22.4	25.7	49.0	100.0(210)	4.21
부모교육	0.9	2.7	15.5	31.0	50.0	100.0(226)	4.27
가족자조모임	1.8	2.9	17.2	34.1	44.0	100.0(273)	4.15
멘토 프로그램	0.7	4.3	15.9	24.6	54.3	100.0(138)	4.28
부모자녀 나들이	1.3	0.8	11.1	27.3	59.4	100.0(377)	4.43
부모 방문교육	1.2	1.0	9.1	20.6	68.1	100.0(727)	4.53
한국어 방문교육	1.1	1.0	6.9	19.6	71.4	100.0(611)	4.59
기타	5.1	-	10.3	7.7	76.9	100.0(39)	4.51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 정책연구소



[그림 2]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 부모지원사업

3) 추후 이용 희망

- 계속하여 또는 새로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 30%대의 요구를 나타낸 서비스는 부모자녀 나들이, 부모 방문교육, 한국어 방문교육서비스 임. 다음으로는 부모교육이 20% 수준이며 아이돌봄 지원, 육아정보나눔터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멘토 프로그램 등이 10%대임.

-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하여 향후 이용 희망 비율이 높았음. 이용 경험 여부도 임신·출산 지원과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이용 경험자가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방문교육의 경우에도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30% 이상이 계속 이용하기를 희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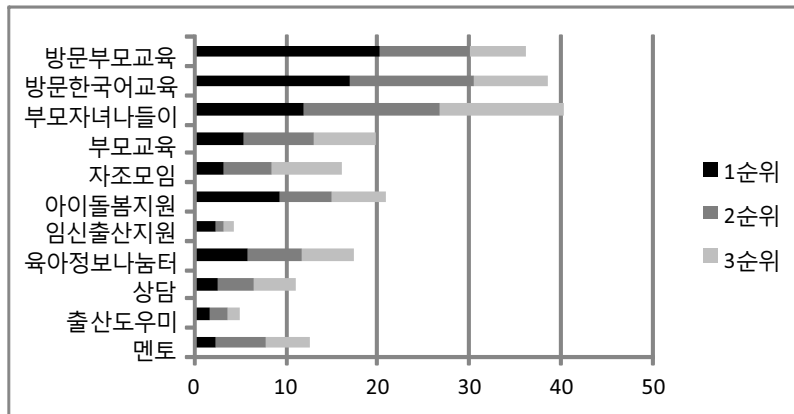
〈표 17〉 부모지원사업 이용 및 인지여부별 이용 희망 비율

단위: %(명)

구분	임신 출산 지원	출산 도우미	아이 돌봄 지원	육아 정보 나눔터	상담	부모 교육	가족 자조 모임	멘토 프로 그램	부모 자녀 나들이	부모 방문 교육	한국어 방문 교육
전체	8.0	8.3	18.4	17.4	14.7	20.4	18.8	14.6	34.1	35.3	31.8
이용	9.2	10.3	32.0	23.0	25.1	28.3	28.9	32.6	57.3	39.0	28.2
인지·미이용	10.2	10.3	23.9	22.5	18.5	27.2	34.7	25.8	49.5	44.9	45.5
미인지	5.6	6.5	13.0	15.9	12.5	18.6	17.7	10.8	25.0	33.3	30.5
X ² (df=2)	11.4**	8.3*	59.0***	87*	249***	14.7***	214***	770***	1453***	14.5***	16.0***

주: 각 사업별 이용 및 미이용자 수는 차이가 있어서 생략함.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 $p < .05$, ** $p < .01$, *** $p < .001$

□ 이러한 요구는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도 반영되었음.



[그림 3] 희망하는 부모지원사업

나. 자녀 대상 프로그램

1) 이용과 미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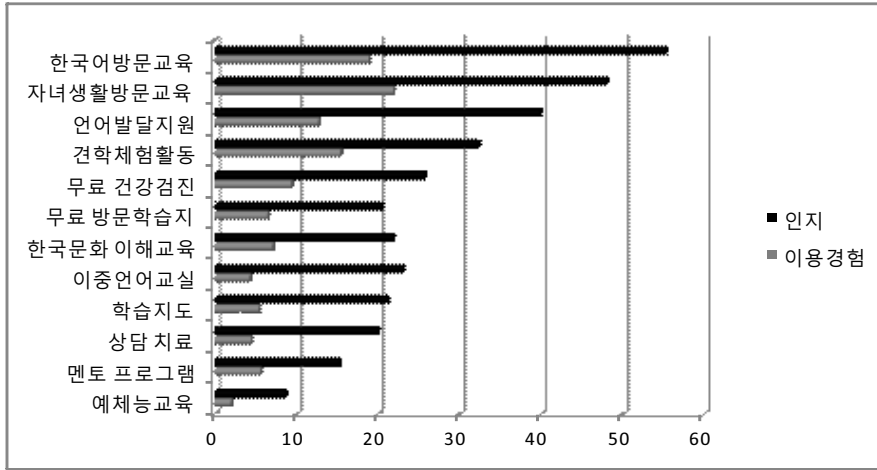
- 조사대상자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지원 사업의 수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인지율이 높았던 한국어 방문교육과 자녀생활 방문교육이 각각 18.9%, 21.9%로 높고, 다음이 견학 및 체험 활동과 언어발달지원 사업이 각각 15.4%, 12.7%이고 이외는 무료 건강검진 9% 등으로 모두 10% 이하임.
- 지역별로는 언어발달지원 사업, 무료 건강검진, 무료 방문학습지 등은 중 소도시가 대도시나 읍·면보다 높게 나타났음.
 -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방문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높고, 방문 한국어교육이나 언어발달사업은 거주기간 4~8년 사이가 높음.

〈표 18〉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경험률

단위: %(명)

구분	방문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실	자녀 건강 검진	학습 지도	예체능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견학 체험 활동	상담 치료	멘토 프로 그램	무료 방문 학습지	기타	(수)
전체	18.9	21.9	12.7	4.3	9.4	5.4	2.0	7.1	15.4	4.5	5.6	6.5	0.6	(1,826)
지역														
대도시	18.2	20.2	11.7	4.0	7.6	2.9	0.7	6.5	15.7	3.4	6.5	2.9	0.7	(445)
중소도시	18.3	22.3	15.8	4.8	11.6	6.1	3.8	6.5	17.2	4.6	6.9	10.9	0.6	(476)
읍·면지역	19.7	22.5	11.5	4.2	9.1	6.3	1.8	7.6	14.3	5.0	4.5	5.9	0.6	(905)
거주기간														
4년 미만	19.0	12.9	8.5	2.3	7.1	2.8	0.9	8.2	8.3	3.4	2.7	3.7	-	(564)
4~8년 미만	20.3	24.0	15.1	4.4	11.3	5.0	2.3	5.9	13.8	4.6	4.4	6.8	0.8	(733)
8년 이상	17.0	29.0	13.6	6.6	9.0	8.8	2.9	7.8	25.7	5.7	10.9	8.6	1.0	(513)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 정책연구소



[그림 4] 자녀발달지원사업 인지율과 이용 경험률

□ 자녀 대상 서비스별로 알고 있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이유는 응답자의 약 20%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받는 자녀발달 지원 사업을 염두에 둔 응답으로 접근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6% 정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됨.

<표 19> 자녀발달지원사업 인지자의 미이용 이유(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기관 이용	학원 이용	데리고 갈 사람 없음	떨어서	자녀가 어려서	가족 반대	필요 못 느낌	프로그램 부재	기타	(수)
전체	20.7	5.3	9.3	11.4	34.9	0.7	2.9	6.2	27.0	(1,095)
지역										
대도시	20.1	5.1	13.6	12.6	36.4	0.7	3.1	6.1	27.9	(294)
중소도시	21.5	6.2	8.5	9.2	34.6	0.8	3.8	8.8	24.2	(260)
읍·면지역	20.7	5.0	7.4	11.8	34.2	0.7	2.4	5.0	27.9	(541)
거주기간										
4년 미만	8.6	1.5	4.2	6.4	63.6	0.5	1.5	5.4	22.0	(409)
4년~8년 미만	29.8	3.1	11.2	12.4	25.2	1.0	2.4	5.2	27.4	(420)
8년 이상	25.3	14.8	14.4	18.3	5.8	0.8	6.2	8.6	34.2	(257)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2) 도움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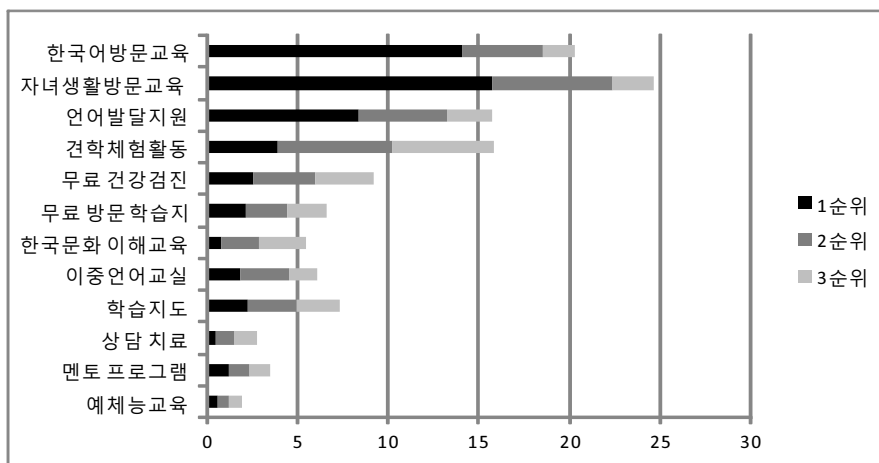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이용 시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으로 만족하는 정도가 매우 높음.

〈표 20〉 자녀발달지원사업이 자녀양육 도움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안됨	도움 별로 안됨	보통	약간 도움	매우 도움	계(수)	5점 평균
한국어 방문교육	-	0.9	10.6	18.1	70.3	100.0(320)	4.58
자녀생활방문교육	0.5	1.1	6.5	20.8	70.9	100.0(371)	4.61
언어발달 지원사업	0.5	1.4	13.0	23.1	62.0	100.0(216)	4.45
이중 언어 교실	1.5	16.9	16.9	64.6	-	100.0(65)	4.43
무료 건강검진	-	0.7	16.9	25.0	57.4	100.0(148)	4.39
학습지도	1.2	-	14.3	19.0	65.5	100.0(84)	4.48
예체능 교육	7.7	3.8	7.7	26.9	53.8	100.0(26)	4.15
한국 문화이해 교육	2.7	-	17.0	24.1	56.3	100.0(112)	4.31
견학 및 체험활동	1.2	0.8	10.6	20.9	66.5	100.0(254)	4.51
상담 및 치료	4.4	1.5	19.1	23.5	51.5	100.0(68)	4.16
멘토 프로그램	1.1	3.4	18.0	29.2	48.3	100.0(89)	4.20
무료 방문 학습지	0.9	-	14.2	25.5	59.4	100.0(106)	4.42
기타	-	-	-	16.7	83.3	100.0(6)	4.83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 정책연구소



[그림 5] 자녀발달지원사업 중 자녀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

- 5점 척도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자녀생활 방문교육으로 4.61점이 고, 다음이 한국어 방문교육, 견학 및 체험 활동임. 최저가 예체능교육과 상담 및 치료로 4.15점, 4.16점임.

3) 추후 이용 희망

- 각 자녀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또는 새로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 30%대의 요구를 나타낸 서비스는 자녀생활 방문교육으로 33.1%이고, 다음이 학습 지도와 무료 방문학습지로 29% 수준이며, 한국어 방문교육과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중언어교실, 무료 건강검진이 20%대의 추후 이용 의사를 나타냈다. 이외 예체능교육, 한국문화 이해, 상담 및 치료, 멘토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이용 욕구가 낮은 프로그램임.

〈표 21〉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희망 비율

단위: %(명)

구분	방문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실	자녀 건강 검진	학습 지도	예체능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견학 체험 활동	상담 치료	멘토 프로그램	무료 방문 학습지	(수)
전체	25.6	33.1	23.1	22.6	23.9	29.5	19.3	17.8	29.5	13.1	14.7	29.2	(1,826)
지역													
대도시	28.3	37.1	26.7	27.6	28.5	35.7	26.5	22.5	35.3	17.5	21.6	32.4	(445)
중소도시	24.6	28.6	19.3	21.8	22.9	27.7	19.7	14.9	29.0	9.9	13.9	30.3	(476)
읍·면지역	24.9	33.5	23.3	20.4	22.2	27.3	15.5	17.0	26.9	12.7	11.8	27.1	(905)
거주기간													
4년 미만	32.8	35.1	28.5	23.4	29.4	27.8	19.7	21.3	25.4	13.1	13.1	29.3	(564)
4년~8년 미만	26.5	34.4	25.4	23.6	23.9	32.2	20.7	18.6	30.2	14.2	15.0	29.3	(733)
8년 이상	16.0	28.8	14.0	19.9	17.7	27.3	16.6	12.9	33.3	11.5	16.0	28.8	(513)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 정책연구소

- 자녀발달지원사업별 이용 및 인지 여부별 향후 이용 희망 비율을 보면, 모든 사업이 사업 인지자, 인지하지만 사용 미경험자, 사용 경험자 순으로 향후 이용 희망 비율이 낮음.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방문교육의 경우에도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40~59%가 계속 이용하기를 희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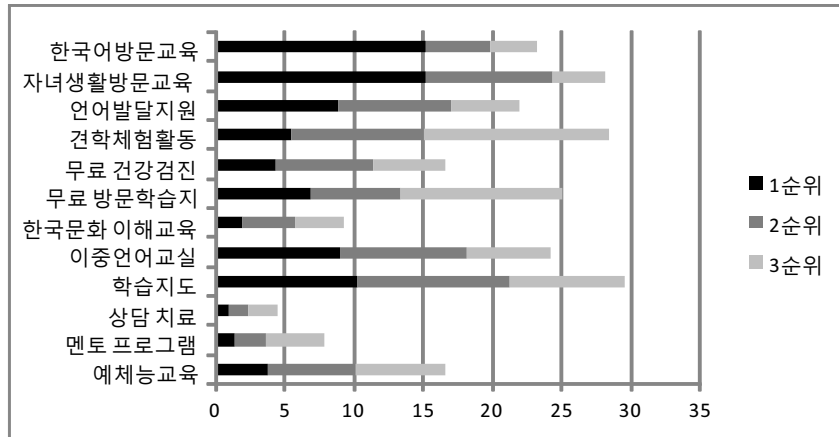
〈표 22〉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및 인지여부별 이용 희망 비율

단위: %(명)

구분	방문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실	자녀 건강 검진	학습 지도	예체능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견학 체험 활동	상담 치료	멘토 프로 그램	무료 방문 학습지	(수)
전체	25.6	33.1	23.1	22.6	23.9	29.5	19.3	17.8	29.5	13.1	14.7	29.2	(1,826)
이용	41.4	48.9	33.5	38.4	40.8	45.1	26.3	28.2	48.9	17.6	19.3	47.1	
인지·미이용	31.1	40.4	31.4	35.9	28.4	35.4	25.1	27.8	39.9	13.9	17.8	33.3	
미인지	20.2	28.2	18.6	18.0	18.9	24.4	15.6	15.3	18.9	7.6	8.1	28.5	
$X^2(df=2)$	56.6***	43.2***	41.1***	68.1***	56.4***	50.3***	27.4***	31.8***	151.6***	32.1***	38.5***	8.7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 정책연구소

* $p < .05$, *** $p < .001$



[그림 6]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희망

- 이러한 요구는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도 그래도 반영되어, 1순위 서비스는 1위가 한국어 방문교육으로 20.2%가 이를 선택 하였고, 2위가 17.0%인 자녀방문교육이며, 3위가 부모자녀나들이로 12.0%이 며 4위가 학습지도로 10%를 넘음. 다음으로 5위는 아이 돌봄 지원으로 9.4% 정도임.
- 2, 3순위 응답을 모두 합하면 전체 순위가 달라져서 학습지도가 29.6%로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자녀방문교육과 견학·체험 활동이 28% 수준으로 유사하고 두 번째가 무료 방문학습지로 25%이며 이중 언어교실, 한국어 방 문교육, 이중 언어 발달교실로 22~24% 수준임.

5. 정책제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발달과 부모 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제안함.

가. 자녀발달지원 사업 강화

- 다문화가족 아동 대상의 초등학교 입학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 아동이 언어능력 부족 또는 의사소통 문제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등학교 준비프로그램으로 한글이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또한 기본생활습관 교육도 초등학교 준비프로그램으로 운영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준비프로그램을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진행함.
-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대학생이나 일반인 등의 자원봉사자도 좋으나 이보다는 방문교사를 통한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을 강화함.
 -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료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한시적으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료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여 방문교사 사업과 연계가 필요함.
- 연극이나 캠프와 같은 참여 행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참여 기회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활동 지원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및 상호교류를 돕고 정서지원을 도모하하고, 일반 가정의 참여를 확대하여 일반 부모와의 교류 기회도 제공함.
 - 연극반, 합창반 운영 등 자녀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통해 가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문화와 정서를 지원함.

- 자녀들이 어머니 나라 언어교육을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11년 100개 센터에서 130명의 이중언어 강사가 배치되어 초등학교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센터 상황에 따라 교육하는 언어도 다르고, 결혼이민자가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다문화가족 수요에 맞춰 이중언어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를 확대하며 이중언어 강사의 자격기준이나 양성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
 - 아울러 이중언어교육을 방문교육서비스로 전환하여 엄마와 자녀가 엄마 나라 말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의 언어프로그램과 이들의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 학습 능력을 도울 수 있는 언어프로그램과 기관 적응이나 또래 갈등 등의 정서적 문제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
 -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는 자신감 결여와 친구관계 어려움 등 적응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이 많음. 언어교육이나 학습지도 외에도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이나 긍정적인 역할모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사회·정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개별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나. 부모 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에서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는 남편보다 큰 것으로 보임. 따라서 주 양육자로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다문화 가족이 많이 받고 있는 부모교육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임신·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단 3회만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자녀의 발달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생애주기를 3단계에서 임신·신생아, 영아기, 걸음마기, 유아기, 학령 전기, 학령 후기 6단계로 세분화하여 부모교육서비스를 제공함.
- 가족통합교육은 아버지 교육, 부모역할교육, 자녀건강지도, 자녀생활지도 등 연 30시간 필수 운영하고 있는데, 회기별 강의형태로 진행되는 자녀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1회성 및 행사성 프로그램이 많아서 교육의 효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효과성을 높임.

다. 자녀발달 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이 자녀의 발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 진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 자녀의 발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동발달 검사가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에게 보급되어야 하는바, 다문화가족 어머니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다국어로 지원함.
-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함.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의무적으로 학교 입학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 입학준비 프로그램 운영을 체험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현재 정보를 제공하거나 활동지나 워크북을 활용한 전달식 교육으로부터 체험식 학습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등학교에서도 1~2월에 입학 예정인 다문화가정 부모 대상으로 교사가 학교입학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를 학교로 파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 기관이나 학교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부모와 일반 가정 1:1 결연을 맺어 주어 알림장 및 가정통신문 해독이나 준비물 준비 등을 돕거나 학교 정보 제공, 사교육기관, 자녀 진로 상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는 한정되어 있고, 지원하는 언어도 센터마다 달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관이나 학교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라. 다문화지원센터 방문서비스 강화 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부모 방문교육과 한국어 방문교육이고 자녀 서비스도 1순위 응답이 자녀생활지도 방문교육, 한국어 방문교육임. 또한 앞으로 계속하여 또는 새로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도 30%대의 요구를 나타낸 서비스는 부모 방문교육, 한국어 방문교육이며, 자녀발달지원 사업으로도 방문사업 희망 비율이 가장 높았음. 이러한 배경에서 다문화지원센터 방문서비스에 국한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기간을 늘려야 함. 방문교육서비스 대부분 5개월 단위로 1회 제공되기 때문에 방문지도사가 이주 여성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교육기간이 짧음. 따라서 교육의 연속성, 연계성 측면에서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기간을 5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함.
 - 교육적 측면에서 연속적 이용을 허용하되, 방문교육 종료 시 평가를 통해 서비스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객관적 평가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방문교육용 교재와 매뉴얼 개선이 필요함.
 - 한국어교육 교재는 1-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5~7단계 정도로 세분화해야 하고, 교육내용도 문법, 쓰기, 말하기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어 이해력을 강화하는 교육내용으로 개선함.
 -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7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현재 학령기 1단계, 2단계 두 가지 매뉴얼만 제공하는데, 연령별, 학년별 매뉴얼이 개발 보급되어야 함.
 - 부모교육서비스 매뉴얼도 일반적으로 4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제공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표준화된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매뉴얼과 부교재가 요구됨.
- 방문교육서비스 교재 개발 시 출신국별 특징이나 대상자 수준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함.
 - 부모교육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출신국 언어로 된 보충 자료가 필요하므로 출신국 언어별 보충 교재를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함.

-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후 일정기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사후관리는 교육 종료 후 월 1회씩 3개월간 이루어지는 가정방문 방식이 적합하며, 사후관리 시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

참고문헌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장명림·장혜진·권미경·이세원·한영숙(2011).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